# 목장 모임 교재

2013년 06월 26일(수)

#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에스더”

에9:20-28

인류 역사를 볼 때 유대인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세계적이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이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세계 경제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장은 ‘버냉키’라는 인물인데 유대인입니다. 19 년 동안 연준의장을 역임했던 전임자(앨런 그린스펀)도 유대인이고, 앞으로 후임자 후보에 오르는 자넷 옐런이라는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영향력은 단순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며 지혜를 겸비하여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리더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여인중에서 결단 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 1. 위기 때 금식기도

금식과 기도는 한 개인이나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개에게 전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 3 일간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했습니다. 긴급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이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권력보다도 위대하고 군대보다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시편 37 편 5~6 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2.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지 않음

모르드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들을 죽일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절대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죽이기 위해 다메섹에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하는 교회, 그가 핍박하는 백성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기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에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 3. 위기 때 사명을 발견함

“(빌 3: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인생을 전력투구할 수 있는 푯대를 두고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푯대가 없어서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요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자의 공통점은 푯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점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당대 제일의 가말리엘의 문하로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중에 엘리트요. 장래가 유망한 젊은 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성공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릭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에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인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그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목적이 확실하다면 위기 때에라도 분명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서 보내는 시간 보다 더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뒤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벧전 2:11 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보며 행동하며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과 비전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 푯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은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4. 위기 때 헌신함**

“(에 4:14)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헌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묵상중에 감동이 온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 사업 잘되어 돈을 수입이 좋은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을 너머 바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명이 없는 한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하고 비장한 각오로 삼일 동안 금식한 후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 임박한 죽음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사회적 지위와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하기 보다 위기 때에 사명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한 결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구원과 승리의 동력은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장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가지 위기적 상황 가운데, 오직 신앙과 사명 때문에 각자의 시간과 재정의 손해을 감수하는 헌신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났던 다니엘과 세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명 앞에 헌신했던 에스더 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속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기독 인물을 소개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민족이 누린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으며, 그 시기에 터져나왔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주 안에서)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에스더 처럼 위기적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과 그 이후에 사명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의 순종의 모습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혹,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